

中國古代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과 展開

姜 燾 靜*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楊柳觀音 圖像의 流行과 定着 |
| II.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 | V. 맺음말 |
| III. 最初期の 楊柳觀音像 | |

I. 머리말

南北朝時代의 관음보살상은 도상의 측면에서 실험성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蓮華手觀音像이나 여원인과 시무외인을 취한 觀音像의 뒤를 이어 6세기 전반부터 새로이 관음 도상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楊柳觀音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國美術史上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각된 양류관음은 명칭조차 거론된 예가 많지 않을 정도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바 없어 그 실체와 성격이 불분명하다.¹⁾ 중국은 물론 불교문화권에서 양류관음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중요성에 견주어 본다면 양류관음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정당한 위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진다. 이에 본고는 중국 고대 양류관음 도상의 성립시기와 배경 및 전개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楊柳觀音像의 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그 형태상의 원류를 중국의 서쪽, 즉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양류관음의 도상이 중국에서 관음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나타난 도상의 중국화, 내지는 중국적 전개를 의미함을 말해준다. 6세기 후반에서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소규모의 양류관음은 그 양적인 측면은 물론, 후대에도 같은 도상이 계속되며 十一面觀音像이나 千手觀音像에서도 버들가지와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고려불화 중의 양류관음상을 주목한 경우는 간혹 있으나 대개 개별적인 작품론에 가까우며 그 도상적 원류나 중국에서의 발전과정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불모의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병을 지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찾기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그 도상이 내포한 의미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II.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

『望月佛教大辭典』〈楊柳觀音條〉에는 양류관음을 藥王觀音이라고도 한다고 하고,²⁾ 계속하여 『千手千眼觀音大悲心陀羅尼』를 인용하면서 신상의 갖은 病難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楊柳枝手를 한다고 하였다.³⁾ 그렇지만 같은 『望月佛教大辭典』의 〈藥王觀音條〉에는 楊柳觀音과 같다는 말이 없으며 단지 ‘新藥을 주어 중생의 心身の 병을 고쳐주는 보살’이라고만 하여 차이를 보인다.⁴⁾ 楊柳觀音과 藥王觀音이 언제부터 동일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觀藥王藥上二菩薩經』이 한역된 5세기 전반에서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이 전역된 8세기 사이에 두 보살의 동일시가 이루어진 듯하다. 양자를 묶어주는 공통의 고리는 ‘治病’, ‘身上病難의 제거’ 등의 주술적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서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기존의 정설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觀音像의 연원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인도 및 중앙아시아의 觀音像 가운데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상도 알려진 예가 없다. 먼저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버들가지의 형상이 축 늘어진 拂子와 비슷하다는 데에 착안하여 그 형태상의 기원이 불자에 있다는 가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차우리(cauri)’의 譯語인 拂子は 인도에서 벌레를 쫓는 도구의 하나로 쓰였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 옆에서 侍衛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것이었다. 이른 시기부터 불자는 귀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
- 2)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에서 ‘북문 동벽에 鉞斧觀音을 안치하고 차례로 戟鞘觀音, 양류관음을 안치한다. 신상의 중병을 소제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楊柳之藥法을 닦는다. 오른손으로 양류지를 잡고 왼손은 가슴 위로 올려 손바닥을 내보인다.’라고 인용하였다. 산스크리트어 Bhaisajyarāja로 음역하여 ‘轉逝捨羅惹’이라고도 하였다. 楊柳觀音을 藥王觀音이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 3) 『望月佛教大辭典』의 楊柳觀音條, p. 4933b 참조. 한편 『佛像圖典』의 楊柳觀音條에도 ‘藥王觀音이라고도 한다. 오른손으로 楊柳枝를 잡고 왼손은 가슴 위에 대고 있다. 다양한 病難의 掃除를 本誓로 한다. 33관음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고 그 經軌로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을 언급하고 있다. 佐和隆研, 『佛像圖典』(東京: 吉川弘文館, 1962), pp. 73~74.
- 4) 『望月佛教大辭典』에서는 『灌頂經』제12와 『拔除過罪生死得道經』의 8대 보살 중, 제6이 藥王이고 제7이 藥上이라고 하였다. 藥王觀音信仰은 劉宋代에 靑良耶舍가 한역한 『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기반으로 하며 ‘과거 무량무변아승지겁에 琉璃光照如來가 있고 그 나라를 懸勝幡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곳의 비구 日藏이 중생을 위하여 無上清淨平等大慧를 설하는데 星宿光長者가 雪山의 영약을 얻어오자 장자의 동생 雷光明이 제호의 양약을 보시하여 성불하게 되었으며 星宿光을 藥王, 雷光明을 藥上菩薩이라고 하였는데 미래세에 藥王菩薩은 淨眼如來가 되고, 藥上菩薩은 淨藏如來가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존경의 표시이자 공양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밀교적 성격의 법식을 모아 놓은 『陀羅尼集經』(卷6)에 정의된 21種의 공양 중에는 白拂을 들고 있는 공양이 포함되어 있다.⁵⁾ 白拂이 공양에 포함된 것은 석가모니가 忉利天에 다녀올 때 범천이 白拂(혹은 拂塵)을 들고 오른쪽에 시립하였던 것에 기원을 둔다.

인도의 삼존불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소장의 金銅三尊板佛(460년)에는 본존 좌우로 불자를 든 협시보살이 표현되어 있다(圖 1).⁶⁾ 틀을 이용하여 주조한 판불은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있는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보살이 시립한 보통의 삼존불인데 판불을 꿰게 되어 있는 꼭지 아래에 명문이 있어 460년에 彌勒三尊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원편의 협시보살상이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어 먼지떨이처럼 생긴 拂子를 들고 있어 연대가 분명한 중국 초기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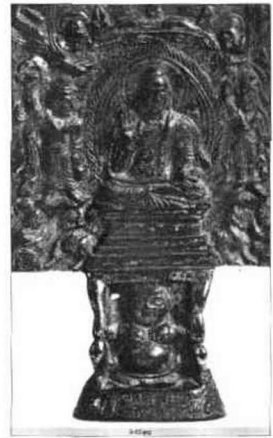


圖 1. 金銅三尊板佛, 北魏 (460년),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소장, 16.8cm

大阪시립미술관 소장의 北魏 延興4年(474)銘 金銅三尊板佛과 北魏 太和7年(483)의 명문이 있는 三尊板佛도 太和樣式의 금동불로서 인도계 삼존불의 영향 아래 제작된 것으로 기본적인 구성은 和平元年銘 金銅三尊板佛과 다를 바 없다. 불·보살상의 이목구비가 더 또렷하고 좀더 자연스럽게 묘사된 점을 제외하면 마치 같은 틀에서 주조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나 본존이 입고 있는 편단우견의 법의와 불자 끝 부분에 좁은 간격의 선각을 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형적인 마투라양식의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보살상은 1세기말에서 2세기초의 쿠샨조각으로 양류관음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조각이다(圖 2-1).⁸⁾ 주목되는 것은 보살의 오른쪽 어깨에 걸쳐 있는 불자로서 장식적인 손잡이가 있어서 마치 먼지떨이처럼 보인다는 점이다(圖 2-2). 몇 가닥으로 나뉘어 세로로 굵은 골이 있는 불자의 외적인 형태가 버들가지와 매우 유사하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인도의 양류관음상이 남아있지 않으나 이같은 불자의 표현이 중국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양류로 변모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굽타시대 후기에서 포스트굽타시대에 걸쳐 조성된 서인도의 칸헤리 제67굴에도 불자를 든

5) 阿地瞿多에 의해 653년부터 654년에 한역. 皆悉退散各誦印下真言七遍.當設二十一種供養之具.作般若波羅蜜多法會.隨力堪能惟好精妙.何等名爲二十一種 … 二十一白拂.以如是等勝妙之具.至心供養.能令人王等及一切衆生無始已來十惡五逆諸罪消滅 … T 901, 18: 810b.

6) William Watson, *The Arts of China to AD 9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p. 128. 참조.

7) 和平元年比丘法亮爲父母 造彌勒像願與一切衆生□成佛道

8) Stanislaw J. Czuma, *Kushan Sculpture: Images from Early India* (The Cleveland Museum of Art, 1985), pp. 76~78 참조.



圖 2-1. 보살상, 쿠산시대,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圖 2-2. 圖 2-1의 배면

보살상이 있다(圖 3). 양 옆의 협시보살들 모두 오른손으로 불자를 들고 있는데 불자는 손으로 잡은 막대기 부분이 길고 벌레를 쫓는 실뭉치 같은 부분이 더 동그랗게 모아져 있는 延興 4年銘 金銅三尊板佛의 협시보살이 들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불자를 들고 있는 보살상보다는 버들가지와 들고 있는 초기의 보살상과 비슷하다. 또 나식 제23굴 제2사당의 협시보살이 들고 있는 불자는 양류가지와 보다 더 비슷하다(圖 4).⁹⁾ 불자 윗부분에 줄무늬가 선각되어 아래로 내려뜨려진 느낌을 강조한 것으로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의 쿠산보살상에 비견될 만한 것이다.

불자와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에 관한 기록은 이미 『陀羅尼集經』(卷一)에 언급되어 있다.¹⁰⁾ 불자와 정병을 들고 있는 인도의 보살상은 관자재보살을 만드는 『陀羅尼集經』의 의식에 부합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머리 위에는 칠보로 만든 천관을 만들고 불신은 진금색으로 하며 적색의 가사를 입힌다. 부처님 오른편에는 관자재보살(어떤 본에는 11면관세음상)을 만들어 안치한다. 오른손은 팔을 굽혀 위로 들어 흰 불자를 들게 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뜨려 조관을 잡게 하는데 조관 입구에 연화를 꽂는다. 연화는 곧바로 보살의 정수리까지 뻗어 있게 한다.¹¹⁾

9) 용화가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아마도 비록보살로의 도상적 고정을 위하여 용화가지로 추측하는 듯하다. 山田耕二, 「ナシク佛教石窟寺院の菩薩像について」, 『インド・パキスタンの佛教圖像調査』(1985).

10) 阿地瞿다가 한역한 『陀羅尼集經』에 수록되어 있는 「十一面觀世音神咒經」이나 「功德天法」 등이 이미 이전에 한역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다양한 다라니와 呪壇法을 집대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陀羅尼集經』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미 한역되어 있었던 諸尊法과 의식을 모아 놓은 것이다.

11) 其佛頭頂上作七寶天冠. 其佛身形作眞金色. 被赤袈裟. 其佛右邊作觀自在菩薩(一本云十一面觀世音像)右手屈臂向上把白拂. 左手申臂向下把深罐. 其罐口中置於蓮華. 其華端直. 至菩薩頂… 『陀羅尼集經』(卷1) T 901, 18: 785c.

그런데 『陀羅尼集經』(卷3)에는 梵摩天을 흰 불자와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만드다는 조상법이 있어서 언뜻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자와 정병을 관음보살의 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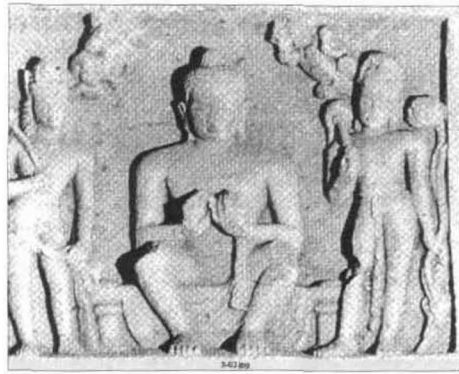


圖 3. 칸헤리 제67굴 三尊佛. 굽타시대

보살 우측에 범마천을 안치한다. 몸 전체는 백색에, 귀에는 보당을 달며 ... 오른손은 어깨쪽으로 팔을 구부려 흰 불자를 잡고 왼손은 팔을 내려뜨려 조관을 잡는다.¹²⁾



圖 4. 나식 제23굴 제2사당 脇侍菩薩

6세기경에 제작된 작은 규모의 보살상 중에는 불자인지 버드나무 가지인지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 육안으로 보아서 다소 확신이 서지 않는 예들이 있으나 더러는 작고 가는 선을 새겨 넣어서 마치 버들잎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保定元年(561)銘 觀音立像이나 東京예술대학소장의 太建元年(569)銘 觀音像(圖 9)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양류관음은 아니지만 北周 保定元年(561)銘 菩薩像은 현재 알려져 있는 양류관음 가운데 '觀音'의 명문이 확인되는 최초의 예이다(圖 5). 대좌에 현세부모와 인연권속을 위하여 관세음상 1구를 조성하여 일심공양하니 항상 선한 곳에 있고 六道四生이 두루 복을 받기 바란다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¹³⁾ 정병과 버들가지를 든 전형적인 양류관음의 형상이나 버들가지의 표현이 다소 미숙하여 형질 조각 같은 것을 어깨에 걸친 것처럼 보인다.



圖 5. 保定元年銘 觀音立像, 北周(561년), 北京首都博物館 소장

버드나무와 관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경전인 『請觀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이하 『請觀音經』으로 약칭)에는 바이샬리국에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관음보살에게 '버드나무 가지와 깨끗한 물(楊枝淨水)'을

12) 菩薩右脇安梵摩天. 通身白色耳著寶瑠. 其項上著七寶瓔珞. 立毛鬚髯上. 右手屈臂向於肩上. 手執白拂. 左手申臂手執深鉢. 『陀羅尼集經』(卷3) T 901, 18: 805b.

13) 維周保定元年歲次辛巳四月八日 佛弟子□□爲父母 所生父母 合門大小 因緣眷屬 造觀世音一區 一心供養 常與善居 愿六道四生普同斯福

바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노래(唱)하며 消伏毒害陀羅尼를 불러 (역병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다.¹⁴⁾

이때 세존이 장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멀지 않은 正立 西方에 佛世尊이 있어 이름을 無量壽라 하고 (그 옆에) 보살 있으니 관음, 세지라 이름한다. …중략… 五體投地하여 예를 다하고 향을 태우고 散花하여…… 중생을 위하여 佛과 二菩薩을 청한다. …이에 바이살리 국인이 양지와 정수를 관음에게 바친다. 大悲觀世音은 一切衆生을 가엾고 불쌍히 여겨 이 주문을 說한다.¹⁵⁾

이같이 『請觀音經』에 의거하여 역병이나 각종 병난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는 수법을 ‘請觀音法’, 혹은 ‘楊枝淨水法’이라고 한다.¹⁶⁾ 일반적으로 관음상의 명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원은 亡者追善, 除病, 延命, 혹은 드물게 安産 등인데 『請觀音經』에도 諸難救濟와 모든 나쁜 업장의 소멸 기원이 명시되어 있다.¹⁷⁾ 현세에서 병난을 치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관음보살을 택한 것은 이미 관음에 의한 諸難에서의 구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무량수삼존의 협시로서 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楊柳觀音像이 아미타불과 일정 정도의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초기의 일부 양류관음상에 화불이 묘사된 보관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관음보살이 중생의 현실적 소원을 들어주도록 기원하는 의례인 ‘請觀音法’ 즉, ‘楊枝淨水法’을 도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敦煌에서 발견되었다(圖 6).¹⁸⁾ 그림에는 ‘請觀音法’이나

-
- 14) T 1043, 5세기초 무렵 竺難提에 의하여 한역된 대표적인 초기 雜部密教 경전이며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Sadaksaravidya-mantra*이다. 『六字呪王經』(T 1044), 『六字神呪王經』(T 1045)와 산스크리트어 명칭이 같다. 『六字神呪王經』은 좀 더 후대(502-557)에 한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산스크리트어본이 여러 번 한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비관음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4가지 神呪를 설하고 관음을 칭명함으로써 八難에서 구제된다는 내용이 주류이다. 여기에는 「普門品」의 稱名과 密教的 神呪, 실천적인 修觀法이 혼합되어 있는 셈이다.
- 15) 爾時世尊告長者言。去此不遠正西方。有佛世尊名無量壽。彼有菩薩名觀世音及大勢至。恒以大悲憐愍一切救濟苦厄。汝今應當五體投地向彼作禮。燒香散華繫念數息。令心不散經十念頃。爲衆生故當請彼佛及二菩薩。說是語時於佛光中。得見西方無量壽佛并二菩薩。如來神力佛及菩薩俱到此國。往毘舍離住城門闕。佛二菩薩與諸大衆放大光明。照毘舍離皆作金色。爾時毘舍離人。卽具楊枝淨水。授與觀世音菩薩。大悲觀世音。憐愍救護一切衆生故而說咒曰。普救一切衆生而作是言。汝等今者應當一心稱。南無佛南無法南無僧。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大悲大名稱救護苦厄者。如此三稱三寶。三稱觀世音菩薩名。『請觀音經』, T 1043, 20: 34c.
- 16) 『阿婆縛抄』(卷84) 『大正藏』 圖像編 제9권, 164b. 또 儀法이 정착한 뒤에는 觀音儀法으로 분류되며 楊柳枝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17) 舍利弗當知若善男子善女人。得聞觀世音菩薩大悲名號。及消伏毒害六字章句。數息係念淨行之法。除無數劫所造惡業破惡業障。現身得見無量無邊諸佛。聞說妙法隨意無礙。發三種清淨三菩提心。若有宿世罪業因緣。及現所造極重惡行。夢中得見觀世音菩薩。如大猛風吹於重雲皆悉四散。得離重罪惡業生諸佛前。『請觀音經』, T 1043, 20: 37a.
- 18)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의 이 그림에 관하여 〈楊柳之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일단 병을 치유하려는 의식과정이라는 점에는 대개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Deborah E. Klimberg-Salter, *The Silk*

‘楊柳之法’이라고 쓰여있지 않으나 松本榮一은 이를 〈修請觀音法圖〉로 규정하고 ‘楊柳之法’을 행하는 儀式의 그림이라고 하였다.¹⁹⁾ 『請觀音經』을 기반으로 행해진 의식인 ‘請觀音法’은 관음을 주존으로 하여 각종 惡害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주술과 풍양법들이 명기되어 한역경전에 나오는 거의 최초의 諸尊法이다.²⁰⁾ 智顓는 『請觀音經疏』에서 ‘楊枝를 든다는(設) 것은 관음이 왼손으로 양지를 잡고 오른손으로 조병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그러므로 이를 청하는 자는 (그) 물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지는 흔들어서 떨쳐(拂動) 慧를 표하고 淨水는 맑게 괴어 있어(澄淨) 定을 표현한다’고 하여 주술적인 의식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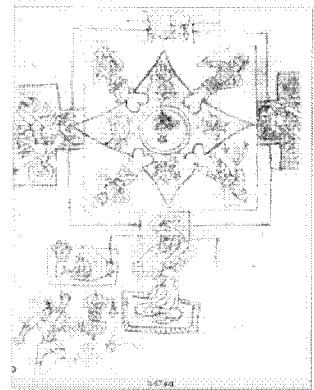


圖 6. 修請觀音法圖, 敦皇 출토,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 42.8×30.1cm

이처럼 양류와 관음과의 결합이 문헌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예는 『請觀音經』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왜 비들가지를 거론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東晋代에 帛尸蜜多羅가 漢譯한 『灌頂經』에 나오는 양류를 이용하여 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참조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병자들에게 양류지를 떨쳐 흔들어서, (또) 여러 병자들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아픈) 무리들이 모두 瘡식을 얻게 되고 신체가 정량해져서 백가지 병이 다 낫는다.²³⁾

이 부분에는 비들가지가 관음보살과 결부된 만한 언급이 없지만 병을 고치는 데에 양류와 정수를 이용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을 매개로 사악한 것을 내쫓고 정화시키는 의식은 해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단 비들가지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정화

Route and the Diamond Path. (UCLA Art Council, 1982), p. 147 참조.

19) 나찰형 병자에게 고통받는 여인을 위해 法을 뒤던(修) 呪壇이라는 해석이다. 양류도 없고 관음보살이 묘사되지 않았는데도 양류지법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松本榮一은 淨水瓶 차방에 있는 아미다불의 四親近菩薩인 金剛法, 金剛利, 金剛因, 金剛語의 標識인 寶輪, 三股杵, 獨脚杖 및 盤의 4가지 의식용 法具를 들었다. 松本榮一, 『敦皇畫の研究』(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1937), pp. 626~631. 그러나 松本榮一의 견해는 金剛界現圖曼荼羅의 三昧耶會에 의거한 것이며 이미 일본에서 체계적인 공과를 형성했던 淨土 密교의 발달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지지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 濱田隆, 『密教觀音像の成立と展開』, 『密教美術大觀』, vol. 2. (朝日新聞社, 1984), pp. 193~194.

21) T 1800, 39: 968a. 『請觀音經疏』는 智顓가 598년에 쓴 것으로 『請觀音經』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설하였으며 관음의 六字章句陀羅尼의 體用을 따로 해석한 것이다.

22) 『楊枝拂動以表慧 淨水澄淨以表定』 T 1800, 39: 973a. 『阿婆縛抄』(卷84), 『大正藏』 圖像編 제9권, 164b.

23) 『以楊柳枝拂除病者 以水灑諸病人 翳悉得休息 身體清涼百病除愈』 T 1331, 21: 523b.

의식에 사용된 도구 중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은 拂子이다. 『陀羅尼集經』(卷1)에는 外道 부란나가섭이 부처님을 떠보려고 마른 나무를 살려 꽃을 피우는 이야기 중에 拂子가 나온다.

이 때에 부란나가섭이 손으로 흰 불자를 잡고서 (암말라나무에) 물을 흩뿌리자 마른 나무가 다시 살아나 잎과 꽃과 과일이 무성하게 되었다.²⁴⁾

拂子 역시 물을 뿌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주술적인 의식에 사용되었다. 불자의 생김새가 축축 늘어진 버들가지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모두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의식에서 양자의 혼용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버들가지를 이용하여 병을 고친 영험담이 『高僧傳』(卷9) 神異篇에 있다. 佛圖澄이 石虎의 아들 斌을 죽은 지 이틀이 지난 후 살려낸 이야기로 불도징이 그를 살려낸 방법은 단지 버들가지를 들고 와서 주문을 외웠을 뿐이다. 같은 『高僧傳』(卷9) 神異篇에 실린 耆域의 異蹟도 버들가지를 이용한 것이다. 衡陽 태수 騰永文이 두 다리가 휘어져 걸어다닐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버들가지로 물을 뿌리고 손을 들어 올려 주문을 외우기를 세 번 반복하여 騰永文을 견게 한 이야기이다.²⁵⁾ 부란나가섭이 쓴 죽은 나무를 살리는 의식이나 耆域과 佛圖澄이 병을 고친 방법은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며 주문을 외운 점에 공통성이 있다. 이들 기록으로 미루어 버들가지로 물을 뿌려 특정한 병을 낫게 하는 의식이 실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의식을 행한 인물이 관음보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물과 버들가지나 拂子를 통한 특정한 주술적 행위가 병을 고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불자와 버들가지가 형태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혼동되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당시 실제로 쓰인 불자의 재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019년에 道誠이 편찬한 『釋氏要覽』에는 拂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²⁶⁾

윤에 이르기를 비구가 풀벌레를 걱정하며 부처님이 불자(공양)를 받으신다고 하였다. 승지에서서 부처님이 실로 만든 불자, 첩(얇은 모직물)을 가늘게 잘라 만든 불자, 늘어진 불자(西蜀의 튼나무로 만든 것?), 나무껍질로 만든 불자(공양)를 받으신다고 말한다.²⁷⁾

24) 時富蘭那迦葉, 手把白拂以水散之, 拂於枯樹使樹還生, 枝葉華果悉令繁茂. 『陀羅尼集經』(卷1) T 901, 18: 785c.
 25) 衡陽太守南陽滕永文在洛寄住滿水寺, 得病經年不差, 兩脚攣屈不能起行, 域往看之曰, 君欲得病疾差不, 因取淨水一杯楊柳一枝, 便以楊柳拂水, 舉手向永文而咒, 如此者三, 因以手撈永文兩膝令起, 即起行步如故. 『高僧傳』(卷9) 神異編 T 2059, 50: 388b. 7세기의 『法苑珠林』에도 滕永文의 직위만 長沙太守로 다를 뿐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으나 버들가지를 썼다는 기록은 없다. …長沙太守滕永文先頗精進, 時在徂陽兩脚風攣經年, 域爲咒, 應時得申, 數日起行. 『法苑珠林』(卷28) T 2122, 53: 491b.
 26) 『佛書解說大辭典』(卷5), p. 16.

北宋代에 편찬된 『釋氏要覽』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姓氏, 居處, 出家, 道具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 및 실천법을 불전 중의 내용을 토대로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다. 편찬연대는 쉼 떨어지지만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전통을 그대로 옮긴 기록으로 지침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釋氏要覽』의 기술에 의하면 불자는 전통적으로 실이나 동물의 꼬리털, 가늘게 자른 얇은 모직, 길게 자른 나무껍질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줄기가 연해서 껍질을 벗기기 쉬운 버드나무도 실제 불자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버드나무 껍질로 拂子를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점차 버들가지 불자를 손에 들고 있는 양류관음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灌頂經』과 같은 경전이 한역되고 관음신앙이 대중화되면서 버들가지와 정수를 이용한 주술적 의식이 보급되고, 이에 힘입어 양류관음의 도상이 정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버들가지에 관한 언급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²⁸⁾ 劉宋代에 佛陀什, 竺道生 등이 漢譯한 『五分律』(第26)에는 ‘楊枝를 씹으면(嚼) 5가지의 공덕이 있다. (입안의) 음식을 없애고 冷熱을 제거하며 선하고 능한 맛을 내며 口臭가 나지 않고 눈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였다.²⁹⁾ 이와 유사한 대목이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第13)와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傳』(第1) 〈嚼齒木條〉에 있는데 내용은 大同小異하여 대체로 입 속의 냄새를 없애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齒木을 씹는다는 것이다. 대승비구가 항상 휴대하는 ‘열 여덟 가지의 물건(十八物)’ 에도 양지가 첫째로 지목되어 매우 중요한 휴대품임을 알 수 있다.³⁰⁾ 초기 대승불전에도 대승비구의 휴대필수품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양지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승려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을 것이다.³¹⁾ 대승불교 초기 단계 이후 『請觀音經』이 전역된 시기에 양류가지가 의식에 쓰여지는 일종의 佛具로써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請觀音法』을 說하고 있는 또 다른 의례서인 『四十帖決第七請觀音經法』의 請觀音經法은 六字章句陀羅尼와 消伏毒害陀羅尼 2呪를 외우고 매 시각마다 楊柳枝 2가지를 각각 1가지씩 취하여 闍伽器(功德水 그릇) 위를 때리고 헌납하는 것이다.³²⁾ 楊柳枝를 쓰는 법식이라는 설명

27) …律云比丘患草虫 佛聽作拂子(僧祇云 佛聽線拂列(拂甚拂樹皮拂制)… 『釋氏要覽』(卷中) T 2127, 54: 279b. 그런데 甚은 발음이 같은 樹의 오자일 지 모른다. 西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모양이 왜나무처럼 생겼다는 튼나무를 뜻하는 樹자가 잘못 쓰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튼나무를 이용하여 불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 일반적으로 버들가지를 가리키는 楊柳에 대해, 逸見梅榮은 楊과 柳가 종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逸見梅榮, 『佛像の形式』(東京:東出版, 1970), p. 270.

29) T 1421. 산스크리트어 이름 Mahisasakavinaya로 추정. 『望月佛敎大辭典』, p. 2106 中. 이때 양지를 보통 齒木으로 번역하며 산스크리트어 danta-kāṣṭha를 한역한 것이다.

30) 『望月佛敎大辭典』, p. 2367 中. 『梵網經』(卷下) 참조. 양지 다음으로 錫杖, 深豆, 三衣 등이 있다.

31) 靈瑞之相明王翼衛. 是時行者正作法中. 身毛皆^皆. 卽知得驗. 每日旦起洗手面已. 嚼楊柳枝更漱口訖. T 1421, 22: 173a 세수하고 양류지로 입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律藏 중에 자주 거론된다.

뒤에 '齒木의 呪'라고 하여 楊柳와 齒木을 동일시하였음이 분명해진다. 12세기에 편집된 밀교계 도상집인 『阿婆縛抄』(第84) 請觀音卷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양류관음을 본존으로 하는 密教修法임을 밝히고 있다.³³⁾ 이로써 양류를 이용한 의식의 主尊이 관음임을 알 수 있다.

37수의 관음 관계 달라니가 실려 있는 『陀羅尼雜集』에는 蓮花와 操瓶을 가진 白衣觀音의 造像法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楊柳를 이용한 각종 의례와 그 쓰임새를 짐작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병자를 고치기 위한 법식에 물과 버들가지를 이용했으며 다른 종류의 나무나 도구를 사용했다는 기술은 없다.³⁴⁾ 때로는 버들가지를 齒木으로 쓰면서 주문을 외우는 법식도 소개되어 실제 예견되는 효능과 주술을 결합시킨 예도 보인다.

이 법을 쓸 때에 검은 양털로 만든 자리띠를 왼쪽 어깨에 얹고 주 7편을 외운다. … 치통에는 양지를 씹으면서 주를 7편 외운다. … 불, 불, 칼, 병사, 독,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일절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역시 능히 자신을 지키게 된다.³⁵⁾

치통 환자를 고치는 주문을 외우는 데 양지를 쓰고, 다른 병이 있는 병자에게는 각기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³⁶⁾ 실제로 이같은 의식이 언제 어떤 식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상의 기록은 없지만 『陀羅尼集經』이 기복적, 주술적 의례를 행할 때 메뉴얼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버드나무가 가지고 있는 治病의 성격은 지극히 중국적이다. 전술했듯이 중국 以西 지역에서 양류를 든 보살상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밀교색이 더해진 인도의 각종 의례집이나 경전들에서 관음의 지물로 버드나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관음과 범천, 혹은 파

32) 『多羅尼集經』에도 버들가지를 이용한 의식이 소개되어 있다. …次以娑羅樹汁香,次第與淨諸弟子身,右旋三轉,泮香水竟,次旋炬火亦如前法,次與柳枝各長八指,次授與華竟,令諸弟子向東列坐,教諸弟子投華向前,次嚼柳枝亦如前投,若其華頭向身者好,背向東者知魔障出,向南北者皆爲不吉,柳枝嚼處向者好…『陀羅尼集經』(卷第6) T 901, 18: 814c. …更誦大咒,以柳枝打病人者,其病即差,若一日不差三日作法,決定即差…『陀羅尼集經』(卷第6) T 901, 18: 848a.

33) 『大正藏』 圖像篇 참조. '… 齒木 두 가지를 闍伽器 위에 얹으로 둔다. 세간에 楊柳觀音의 像이 있어 이를 본존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다.

34) 病人東向座,三遍咒一盆水七枚楊枝,東西南北安置盆上,咒竟以此四方灑之,三嚩面三過飲. 이 외에도 주문을 외울 때에 양지를 쓰는 구절로 '…三斗水銅盆上以白練覆上,以七枚楊枝,從橫安上,咒三七遍,用竟棄之廁中支兜那是土公鬼名副梨副梨支兜那(一)阿呵呵那(二)胡律兜支兜那(三)呼呼呼阿若兜支那…'도 있지만 단순히 주문 위주이므로 본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35) 行此法用,黑羊毛繩咒七遍繫左臂,若無羊毛用白繩,若熱病三四日,咒黑繩繫左臂 若頭痛誦咒七遍摩之,眼痛咒白繩繫耳,若患耳咒土七遍塞之,牙痛咒楊枝七遍嚼之,腹痛咒鹽湯七遍服之,產難咒黑繩七遍繫其咽則易,若宿食不消以手摩即便吐,下亦能護身不畏水火刀兵毒狩,一切悉不能害. 『陀羅尼雜集』 T 1336, 21: 606b.

36) 七遍咒楊枝打二七下 闍鈍鬼名呼呼(一)浮律置呼呼(二)阿支擊呼呼(三)浮律置支呼呼(四)伊呼破羅支呼呼(五)私蜜兜伊呼支破羅(六)莎, 7편 주문 외울 때에 양지로 27번 아래를 치고…

슈파티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不空罽索神變眞言經』이나 『初會金剛頂經』 등 인도식 밀교계 관음으로의 전개를 보여주는 경전에서는 다면다비의 神格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버들가지가 지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³⁷⁾ 경전이나 실제 조성례를 보아도 變化觀音의 持物로 瓶이나 索, 杖, 念珠와 與願印이 수인에 포함되지만 양류지는 천수관음의 40대수에만 나올 뿐이다. 인도에서 觀音像은 왼손은 연화, 오른손은 여원인을 한 觀音像이 많고 四臂像의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염주를 들고 왼손으로 병을 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양류관음은 없다. 인도에서 변화관음의 지물로 양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唐代 이후 중국의 觀音像에서 楊柳手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서쪽 지방에 버드나무가 드물다는 『南海寄歸內法傳』의 지적은 분명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³⁸⁾ 서국에는 양지가 희소한데 치목을 양지로 이름한 것은 번역자의 와전이며 나란다에서 목격한 부처님의 치목은 양지가 아니었다는 義淨의 언급에서 양류의 중국적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민간에서는 버들잎으로 차를 만들거나 줄기를 이용하여 가벼운 진통 효과가 있는 약으로 썼다고 한다. 『易經』에서는 양류로 枯木의 재생이나 男女和合을 비유하여 따뜻한 봄에 만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며, 後魏 때에 賈思勰이 저술한 『齊民要術』(第5)에도 '정월에 楊柳가지를 집 위에 두면 百鬼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실제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음용되었던 양류는 악귀를 막아주고 만물에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통용되었던 셈이다.³⁹⁾ 楊柳枝法이 언제부터 관음의 고유한 呪法으로 인식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大乘比丘가 齒木으로 휴대했던 양류에 중국 민간신앙의 성격이 반영되어 楊柳枝法이 자리잡고, '楊柳手法의 주관자 관음'으로 인지되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Ⅲ. 最初期の 楊柳觀音像

楊柳手의 기원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조각이 1954년 四川成 成都 万佛寺址에서 발굴되었다(圖 7). 크게 두 부분으로 잘린 판석의 윗부분은 정토도가 있고 아래에는 「普門品」의 〈諸難

37) 田中公明, 「印度における變化觀音の成立と展開 - 所謂四臂觀音の解釋を中心して-」에는 본격적인 밀교로 발전한 이후의 일어기는 하지만 4臂, 6臂, 8臂가 있는 多面多臂의 變化觀音의 지물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에도 楊柳를 든 楊柳手는 거론되지 않는다.

38) 豈容不識齒木名作楊枝, 西國柳樹全種, 譯者訛傳斯號, 佛齒木樹實非楊柳, 那爛陀寺日自親觀, 『南海寄歸內法傳』(第一) <嚼齒木條> T 2125.

39) 小林太市郎, 「女媧と觀音」(上, 下), 『佛教藝術』1・2(1948), p. 115. 그는 양류의 이와 같은 성격이 陽春의 增殖神인 女媧에게 부속하게 된 이유라고 하고 天寶 13년 黃河에서 湧出한 女媧 무덤에 楊柳가 쌓으로 올라왔다는 『唐歷』의 고사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楊柳枝法에서의 양류는 주로 치명에 관련한 것으로서 만물의 증식이나 봄의 생명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圖 7. 雙楊柳觀音像, 6세기 전반,
成都 萬佛寺址 출토

救濟圖)가 있는 조각이다.⁴⁰⁾ 지금까지 그 이면에 새겨진 淨土圖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정면에 있는 두드러진 고부조의 관음입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⁴¹⁾ 滿瓶에 꽂힌 두 송이의 커다란 연꽃 위에서 있는 쌍보살상으로 원래 좌우대칭이었겠지만 왼쪽의 보살상은 현재 오른쪽 다리 일부만 남아있다. 보살상의 복식이나 천의, 영락의 표현, 특히 좌우의 공양보살상에 보이는 색다른 보관은 중국이나 인도의 조각과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다.⁴²⁾ ‘觀音’이라는 명문은 없지만 보살상의 이면에 『法華經』 「普門品」 제난구제도 보이는 장면이 저부조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의 보살상이 오른손 손등을 바깥쪽으로 하여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어서 이 보살상을 양류관음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觀音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양류와 정병을 두 손에 잡고 있어서 관음으로 판단되는 작은 크기의 금동상이 현재 서안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관음의 명문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분명한 양류관음이며 소규모인 것을 보면 개인 호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蕭梁 普通 2年(521)의 연기가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양류관음상 가운데 연대가 확인된 최초의 예이다. 초기의 양류관음에서 관음의 명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형대좌에 명문이 있는 東魏 興和元年銘(539) 觀音像(圖 8)에도 관음의 명칭은 없으나 ‘…登佛道 敬造無量壽佛…’라는 명문이 관음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정병과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이 관음상들은 성도 만불사지 출토의 雙楊柳觀音像(圖 7)과 함께 양류관음이 6세기 전반에 이미 소개·조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만한 조각이다.

東京예술대학 예술자료관 소장의 太建元年(569)銘 觀音像은 비교적 고식전통을 고수한 조각이다(圖 9).⁴³⁾ 일본 法隆寺 헌남보물 중의 보살상과 양식적인 친연성이 있다. 명문 중에

40) 방형의 구획이 있는 측면에는 기마인물상, 인물군상, 용, 보탑, 천인, 연화등이 있다. 이에 기반한 정토 미술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는 吉村愔, 앞의 글 참조. 여기서의 정토는 후대에 엄밀하게 정의되는 ‘妙樂國土(sukhavati)’의 개념에 의거한 淨土라기보다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天處’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여겨진다.

41) 裏面의 정토도는 매우 낮은 저부조로 제작되었지만 이른 시기의 정토도라는 소재의 특수성과 높은 회화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吉村愔, 「南朝の法華經普門品變相」, 『天人誕生圖の研究』(東方書店, 1999), pp. 385~402와 남북조 양식 기원에 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조성연대는 대략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42) 成都 조각에 보이는 동남아시아를 통하여 수입된 중인도와 남인도 조각 양식의 영향에 관하여 정예경,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혜안, 1998) 참조.

43) 太建元年十二月十日 徐大智爲自身造佛□及六道四(生?)

陳의 연호가 있으며 보기 드물게 자기자신을 위한다는 奉爲가 있다. 특이한 형태의 광배와 대좌의 장식, 얼굴이 작고 신체 비례는 길어진 것에서 齊周樣式과 차이가 있지만 南朝 조각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 유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北周 天和7年銘(572) 觀音像이다(圖 10).⁴⁴⁾ 延嘉7年銘金銅如來立像을 연상시키는 두툼한 단판 연화대좌 위에 직립한 보살상에는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관세음상을 만든다는 명분이 있어서 '諸難救濟의 관음상'임을 명백히 하였다.



圖 8. 興和元年銘 觀音立像, 東魏 (539년)



圖 9. 太建元年銘 觀音立像, 陳(569년), 東京예술대학 예술자료관 소장

1992년 陝西省 西安市 북쪽의 漢城鄉 西查村에서 대리석제의 양류관음이 출토되었다(圖 11, 12). 소재와 양식이 엇비슷한 3구의 보살상이 원래 西漢의 長安城 유적지이자 北周의 王都였던 곳에서 발굴되었다.⁴⁵⁾ 보고자는 北周 武帝의 폐불로 인하여 매장된 조각으로 북조 말기 예술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⁴⁶⁾ 발굴된 세 상 모두 약 4.5등신의 유아적인 비례이며 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하고 비교적 근엄한 인상이다. 그 중 한 보살상은 손등을 바깥쪽으로 하여 蓮蓬을 쥐고 있는 것처럼 버들가지를 잡아서 오른손으로 蓮蓬을 쥐고 있는 北齊, 北周 觀音像 도상의 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⁴⁷⁾ 또 다른 대리석제 보살상도 온 몸에 복잡한 영락 장엄을 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 위에 금박을 입혀 화려하게 치장하였다(圖 12). 山東 龍興寺址 출토의 불·보살상에도 채색을 한 것을 보면 남북조시대 이래 소조나 대리석으로 만든

44) 天和七年正月五日佛弟子□妻□□敬造觀世音像爲切在難

45) 西安市文物局, 『西安北郊出土北周白石觀音造像』, 『文物』(1997-11, 1997), pp. 78-79. 보고자는 모두 관음보살이라고 하였다.

46) 西安市文物局, 앞의 글, p. 79. 개별적으로 隋代의 양식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47) 본고에서 따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도상의 발전에 있어서 執寶珠觀音과 蓮華手觀音이 융합된 것으로 생각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도상으로 파악된다. 圖 11의 관음보살상은 松元三郎이 우신 隋代로 편년하고 다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지나치게 짧은 신체 비례와 인체와 공간과의 관계가 미분화되어 있는 점에서 北齊의 조각으로 보고자 한다.



圖 10. 天和7年銘 金銅觀音菩薩立像, 北周(572년)



圖 11. 楊柳觀音像, 6세기 후반, 陝西省 西安市 漢城鄉 西查村 출토



圖 12. 楊柳觀音像, 6세기 후반, 陝西省 西安市 漢城鄉 西查村 출토

조각에는 채색을 하여 한층 장엄의 효과를 높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상은 손바닥을 앞쪽으로 하고 있어 연봉이나 보주를 잡던 방식에서 버들가지를 잡는 데 알맞게 변화한 것이다. 전통적인 관상을 따라 버들가지를 잡으면서도 보주를 잡듯이 표현한 보살상과 불자의 가는 부분을 친 것처럼 만든 보살상은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楊柳觀音像도 隋代 양식에 가까운 노숙한 相互를 보여 주는 北周 末期 작품이다. 이들은 대개 같은 造佛所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쪽 팔이 결실되었고 다른 손에는 지물이 없는 미니어폴리스의 보살입상은 開皇元年(581)에 중수하고 追刻한 발원문이 있다(圖 13). 명문에는 원래 邑子 30인이 北周 天和5年(570)에 七世父母, 現生父母, 因緣眷屬을 위해 만들었던 釋迦相(像)인데 開皇元년에 석가의 遺風을 仰慕하며 皇帝陛下, 法界衆生, 七世父母가 함께 成佛하기 바라며 重修한다는 내용이 있다. 양 손은 결실되었으나 팔의 위치로 미루어 양류지와 정병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남북조시대의 양류관음상들은 대부분 마치 자루를 움켜잡듯이 정병을 잡아 허리춤에 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려뜨린 隋·唐의 조각과 차이가 있다. 성립 초기의 楊柳觀音像은 蓮華手와 執寶珠, 施無畏印·與願印의 觀音像과 혼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南北朝時代에는 觀音菩薩의 圖像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楊柳觀音 圖像의 流行과 定着

隋代 이후로 양류관음은 가장 중요한 관음의 도상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밀교의식의 보급에 힘입어 양류가 주술적 의례를 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법구로 널리 쓰이게 되고 점차 아미타신앙이 융성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東長儒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술천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영원히 고통의 세계를 떠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開皇元年銘(581) 觀音立像을 제작하였다(圖 14).⁴⁸⁾ 그 내용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災難을 당하지 않도록 諸難의 예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

적인 관음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울러 도술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난다면 왕이나 장자, 제후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한 데서 미륵신앙과의 결합 가능성도 보여준다.⁴⁹⁾ 亡者追善과 〈諸難救濟〉의 기원, 彌勒信仰과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東長儒의 발원은 남북조시대에 형성된 관음신앙의 다양한 면모를 잘 드러낸다. 開皇元年銘 觀音立像은 발원문의 복합적인 내용만큼 양식상으로도 과도기적인 작품이다. 보살상의 천의나 각종 장식은 매우 얇아져 몸매를 잘 드러내지만 인체에는 원통형의 양감만 있을 뿐이다. 움켜잡았던 양류는 이제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 어깨 쪽으로 살짝 넘기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린 왼손도 병목 대신 손가락으로 병의 입구 쪽을 잡고



圖 14. 開皇元年銘 觀音立像, 隋(581년)



圖 13. 菩薩立像, 北周(570년), 隋 開皇元年(581) 重修, 미니어폴리스미술관, 91.4cm

48) 開皇元年歲次辛丑四月庚辰三月十七日丙申 佛弟子東長儒爲上父 敬造觀世音石像一區 愿上父託生兜率 值佛聞法 永離衆苦 不墮三塗 (沸?)湯止流 洪爐息炎 刀山摧鋒 劍樹落刀 若生人間 侯王長者 富貴家人

49) 『法華經』을 매개로 한 관음과 미륵의 결합에 관하여 줄고, 『中國 南北朝時代의 半跏思惟像과 彌勒信仰』, 『百濟研究』33 (2001) 참조. 託生을 기원하는 것은 下生하여 미륵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함인데 다시 下生할 때에 제후나 장자라는 현실적으로 부귀한 존재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원의 성격이 매우 현실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圖 15. 開皇3年銘 菩薩像, 隋(583년).
뉴욕메트로박물관 소장



圖 16. 開皇13年銘 觀音立像,
隋(593년), 일본 大原
미술관 소장

있다. 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는 복잡하고 화려해진 각종 영락장식들
도 주목된다.⁵⁰⁾

양식상으로는 고식이지만 開皇3年(583)
의 명문이 있는 보살상은 오른손이 결실
되었으나 양류수있을 가능성이 있다(圖
15). 정면 부동의 자세로 직립한 관음
상과 두 명의 승려상을 나란히 안치한
흔치 않은 觀音三尊像이다. 명문에는 칠
세부모와 현재의 부모를 위하여 造像한
다고 하였다.⁵¹⁾ 양식상으로 훨씬 진전
되어 있는 大原미술관 소장의 開皇13年
銘(593) 觀音立像도 명문에는 결락된
부분이 많지만 亡者追善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圖 16).⁵²⁾ 동시에 八難을 만나지 않기 바란다고 명시하여 재난구제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팔에서 대좌까지 흘러내려 보살상의 하반신을 마치 액자처럼 감싼 천
의는 北周·隋代에 유행한 지역양식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을 보이는 開皇16年
銘(596) 觀音像도 오른손이 결실된 양류관음으로 생각된다. 6세기 전후에 한 계열을 이루었
던 黃華石製 조각이며 사각대와 정면에서 우측, 배면, 좌측의 순으로 발원분과 발원자의 이름
을 새겼다.⁵³⁾ 역시 팔에 걸쳐진 천의가 그대로 대좌까지 이어져 하반신을 액자처럼 감싸고
있으며 貼花文이 붙어있는 정병을 들고 있다.

신체 전면에 화려한 영락장엄을 한 이들 관음보살상과 달리 일군의 양류관음상들은 각종
장엄이 줄어들어 정돈되었으며 대담하게 드러낸 인체의 굴곡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여 盛唐美

50) Denise Patry Leidy, "Avalokitesvara in Sixth-Century China," *The Flowering of a Foreign Faith*. (Mumbai: Marg, 1998)에서는 장엄된 관음상의 조성에는 왕실 차원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화려하게 장엄된 이같은 유형의 보살상을 관음보살로 파악하였으나 이들을 모두 관음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1) 開皇三年歲次癸卯 三月己亥朔八日丙午 佛弟秦光先 仰爲七世父母所生父母 合門大小 敬造像一區 所應從心
52) (죽은) 동생이 서방에 다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고, 또한 칠세부모와 현재의 부모, 법계의 권
속들이 팔난의 (고통을 만나지 않고) 일시에 성불하기를 기원하였다. ()는 필자의 추측에 의한 해석이다.

開皇十三年歲次癸丑十一月丁酉朔二十九日□丑 佛弟子(得?)伏歡 爲□弟洪□敬造玉石像一軀 藉冊□回復(이상
정면) □者託生西方 □開法 又□七世□父母眷屬 法□衆生 □□樂 □八難 一時成佛 □□(이상 좌측)

53) 開皇十六年歲次丙辰 五月癸丑朔二十九日辛巳 佛弟子胡明□□時非有□捨家珍 爲亡姊寄妃觀世音玉石像一區
仰爲皇帝陛下法界衆生 俱成正覺 姪子十供養 姪子□供養 … 발원자의 성이 胡씨인 것을 보면 漢族은 아니
었을 것이다.

術樣式으로의 발전을 예견시킨다. 과도기 양식을 지닌 金銅楊柳觀音立像은 정면관 위주의 조각이면서 왼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초보적인 三曲 자세를 하여 남북조시대의 전통을 지닌 수 양식의 보살상이면서 동시에 당양식으로의 진전을 보여준다(圖 17). 당 조각으로 판단하기 쉬운 佐野미술관 소장 양류관음은 명문이 없지만 수 조각으로 생각되는 예이다(圖 18). 앞의 보살상과 달리 대좌가 장식적인 연화줄기처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삼존상의 협시보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른손을 위로 들어 아래로 축 늘어진 버들가지를 잡고 있는데 나뭇잎이 표현되지 않아 마치 길게 늘어진 천조각을 보는 듯 한다. 프리어미술관 소장의 金銅楊柳觀音立像도 양식적으로 이와 매우 유사하다.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 굴곡이 심한 곡선적인 천의를 걸친 프리어의 보살상에는 開皇18年(598)에 高陽縣에서 제작하였다는 명문이 있어서 이 일대가 지속적인 불상 조각의 메카 역할을 하였으며 조각 양식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⁵⁴⁾ 이 같은 양식의 보살상을 기존에는 당대로 편년하였으나 점차 수대의 조각으로 확인되는 예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龍門石窟에는 唐代에 들어 개인 발원의 소규모 龕窟에 양류관음을 조성하여 안치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얼굴 윗부분이 깨어져 化佛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지만 萬佛洞 외벽에 있는 양류관음상은 감실 바깥쪽의 명문을 통해 永隆2年(681)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圖 19).⁵⁵⁾ 얇은 裳衣 아래로 신체의 미묘한 굴곡이 표현되었고 작은 구슬로 만든 듯한 현실적인 화려한 영락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전형적인 초당조각으로 오른쪽 손가락으로 살짝 잡은 버드나무의 묘사가 마치



圖 17. 金銅楊柳觀音立像, 6세기 후반



圖 18. 金銅楊柳觀音像, 隋, 일본 佐野미술관 소장, 13.2cm

54) 현재 프리어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보살상의 캡션은 唐代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開皇十八年 歲次 戊午'의 年紀가 있어 隋代인 598년의 조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55) 「萬佛洞銘記」에 5월 8일 許州 儀鳳寺 比丘尼 眞智가 관음보살 1龕을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龍門文物保管所 編, 『中國石窟: 龍門石窟 第2卷』(東京: 平凡社, 1988), p. 307.



圖 19. 永隆2年銘 楊柳觀音像
唐(681년), 龍門石窟 萬佛洞



圖 20. 貞元7年銘 救苦觀音立像,
唐(791년), 龍門石窟 萬佛溝, 盧徵龕

拂子처럼 보인다. 같은 龍門石窟 萬佛溝 북쪽 벼랑의 '盧徵龕'은 貞元7年(791)의 연기가 있다(圖 20).⁵⁶⁾ 자연 암벽을 깊이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중앙에 救苦觀音立像을 안치하였는데 인체의 미묘한 굴곡이나 양감이 표현되지 않아 둔탁한 느낌을 주는 中唐의 조각이다. 팔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唐代 龍門의 관음상의 주류가 양류관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盧徵龕의 救苦觀音像도 양류관음이었을 확률이 높다.

V. 맺음말

500년대 초반에 처음 고안된 것으로 생각되는 楊柳觀音은 불자를 든 보살상에 기원이 있으며 불자의 재료 중 하나로 버들가지가 쓰이게 되면서 양류의 도상이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양류관음이 기존의 관음 도상을 급속도로 대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양류관음만이 갖는 治病의 기능이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병을 고치는 의식인 '楊柳之法'은 버들가지와 물을 이용하여 관음을 請하는 修法으로 쓰였다.

楊柳手의 보살상에는 관음 이외의 다른 尊名이 부여되거나 새겨진 바가 없다. 예컨대 蓮花手나 通印, 寶珠를 지물로 하는 6세기의 다른 관음 圖像들은 銘文이 없으면 觀音으로 확정짓기 곤란한 면이 적지 않다. 이들 도상은 관음에만 국한된다기보다 당시 대부분의 보살상에 공통으로 적용된 도상규범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楊柳手의 보살상이 관음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양류관음이 관음 이외의 명칭으로는 불릴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음의 圖像으로 가장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을 의미한다.

隋代 이후 일어난 다양한 관음상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양류관음이 지니는 도상으로서의 가

56) 兵部侍郎 盧徵이 썼다는 撰文이 있어 盧徵龕이라고 불린다. 龍門文物保管所 編, 앞의 책, p. 291.

치는 변하지 않았다. 밀교 관음상인 十一面觀音이나 千手觀音 등 多面多臂의 變化觀音들의 지물 중에 양류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盛唐 이후 조성되는 水月觀音이나 白衣觀音에는 버들가지를 병에 꽂아 한 쪽에 두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을 옆에 두고 있는 보살상은 예외 없이 관음으로 파악된다. 지물의 종류나 寶冠化佛 有無에 관계없이 楊柳手를 한 보살상은 관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조시대 후기에 성립된 楊柳觀音은 관음보살상의 중국화 과정을 통해 관음 만의 독자적인 도상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Iconographic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Willow-Bearing Avalokiteśvara Images in Ancient China

Kang Hee-jung

The iconography of the willow-bearing Avalokiteśvara or Guanyin 楊柳觀音 images derived from the *caurī* bearers in ancient India. The willow was adopted as an attribute of Guanyin, since a *caurī* and willow looked almost alike. Besides their similarity in appeara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similarity in materials. According to the *Shishi yaolan* 釋氏要覽, *cauris* were made of various raw materials like the bark of trees, animal hair, some kinds of yarn, and woolen fabrics cut lengthwise. One suspects that the bark of willows was used for making a *caurī* in the 6th century. Since willow-bearing Guanyin images were not found in the Chinese Central Asia,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iconography of a willow-bearing Guanyin was a Chinese creation.

Although its iconography originated in the 6th century, the making of willow-bearing Guanyin images remarkably increased during the Sui Dynasty. The rituals using a branch of willow and a water bottle seem to have been widely performed for curing disease during the Sui dynasty. This type of ritual is described in identical form in many *sūtras* such as *Qing guanyin jing* 請觀音經 and *Tuoluoni zijing* 陀羅尼集經 translated during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Inscriptions on the pedestals of willow-bearing Guanyin images also support that such ritual was per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images.

The willow-bearing Guanyin is significant in the development of iconography of Chinese Guanyin images, because this type was exclusively used for Guanyin unlike other characteristics frequently attributed to this deity.